

보수통합 참여 할까...호남계 중심 정계개편 나설까

■안철수 정계 복귀, 광주·전남 총선판 영향은?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2일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제21대 총선을 앞둔 광주와 전남의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비롯한 정치 재개도 관심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안 전 의원의 선택은 앞으로 그려질 총선 지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분당사태를 맞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새롭게 창당한 새로운보수와 대안신당 등 군소 정당, 그리고 중도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총선에서 안 전 의원을 내세워 광주·전남지역의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도 향후 야권 정계개편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당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지역구 18석 가운데 16석을 석권했다. 하지만 총선 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무소속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제 갈길을 갔다.

바른미래당 소속 지역 의원 4명 중 안철수계는 권은희(광주 광산구) 의원만 남은 상태로, 지지 기반은 거의 와해한 상태다. 일단 안 전 의원의 복귀로 내년 총선에서 권 의원의 역할과 행보가 주목받게 됐다. 민주평화당·대안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안 전 의원과는 거리를 두며 '제3

호남 지지율 예전 같지 않아 '녹색 돌풍' 일으키긴 어려울 야권 중심 나설뻔 영향 클 듯

시대'를 만들어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신당의 간판이 될 수 있는 '제2의 안철수'를 찾지 못하고 '세대교체'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이른바 '대표 주자'가 없는 한계를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주도해 제3지대를 만들고 여기에 안 전 의원이 가세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반쪽이 된 당을 '제3지대 정당'으로 재창당하고 대안신당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 전 의원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뜻까지 밝힌 상태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당시보다는 '참신함'이 떨어지는 데다 그동안 보수로 '우클릭' 행보를 보이며 지역에서 지지율이 이전보다 못하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권은희 안 전 의원이 유승민 의원이 추진 중인 보수 통합에 참여할지 여부가 안 전 의원이 보수가 중심이 된 정계개편에 동참하느냐, 그와는 별개로 호남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에 동참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호남에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높고, 그동안 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정서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어서 일단 안철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안 전 의원이 야권의 정계개편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총선에서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추미애, 檢수사 언급하며 "수술칼 여러번 찌르는건 명의 아냐"

조국 前장관 수사 우회 비판

개혁 기회 흘러가지 않게 할 것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2일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찌른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환담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환담에서 검찰의 수사를 의사의 수술에 비유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을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찌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하고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에서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 문제를 지적하거

나,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해왔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아울러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가가 만들어 줬다"며 "이를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빠 실현되고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헌법 따른 권한으로 권력기관 개혁 멈추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세해 첫 공식 석상부터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사회 자리에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 강도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

외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 내의 조직개편이나 인사 문제,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교체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이 참석한 인사사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문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부분

이다. 결국 인사권 행사를 비롯해 검찰개혁 전반의 과정을 적극 주도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민 절반 이상 "총선서 국정 발목 야당 심판해야"

새해 여론조사 보니

야당 심판론은 30%대

정당, 민주·한국·정의당 順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2일 확인됐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국정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국정에 실패한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 중반이었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야당심판론'에 동의하는 여론은 51.3%, '야당심판론'에 동의하는 의견은 35.2%였다.

글로벌리서치 조사(한겨레신문 의뢰·지난달 27~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14명 대상·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야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야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이 37.9%였다.

한국리서치조사(한국일보 의뢰·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은 56.3%, '정부여당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은 34.8%로 나타났다.

'내일이 총선일 경우 어느 정당이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여론조사별로 수치가 편차가 있었지만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순으로 나타났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3.5%, 한국당이 22.5%, 정의당이 6.6%, 바른미래당이 4.4%였다.

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0%, 한국당이 21.9%, 정의당이 11.5%, 바른미래당이 4.0%로 집계됐다.

한국리서치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나눠 조사했다. 비례대표 투표는 민주당 32.1%, 한국당 22.9%, 정의당 15.7%, 바른미래당 4.7%였다. 자체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각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